

## 임마누엘칸트

李灌鎔

一

一個人은 孤立한것이아니다.그뿌럭지를 過去에두고 그가지를 現在에버더내보내여 다른가지와서로連結하고 그實果로 未來에씨를뿌리는것이다.그럼으로 如何한人格과 如何한思想을 研究하든지 그人格과 그思想을 產出한 歷史的背景 그人物의生存하든時代의 思潮의特色 그後世에끼친影響과 效果 等 歷史的考察이 무엇보다도必要한것이다.

우리는 알프山中에서 彷徨한다고 想像한다 골자구니에서 골자구니로 도라다니며 큰봉오리로적은봉오리 다各々個性을發輝하는것을 볼수있다. 그런데 그중에 가장莊嚴히 碧空에놓히솟은것이되인다. 멀리서보면 莫大한바위가 峻嚴히 半空에솟아올라 자못孤寂한狀態를 나타내나 갓가히보면 그形體가달려지며 그뒤에 더욱큰것 더욱奇妙한것이모혀서 이巨大한山峯이되였다. 더욱자세히 샅히여보면 그山을構成하는 흙과돌 나무와솟 샘물과瀑布는 다 情密한 圖案에依하여 巧妙히建設한것처럼되인다 쏘는地平線이 쏘나는데서 식작한山脈이 여긔와서 極頂에達하였고 이로부터 無數한山脫이 八方으로 다시버더나가는것을 바라볼수있다. 이巨大한山岳이 思想의알프山中「칸트」이다. 「칸트」의人格과思想은 갓가히보아야 그偉大함을알것이며 그細密한組織을보아야 그巨大한形體의眞景을 甞길수있다. 그思想의淵源을보고그精神을繼承하는思想을 보아야「임마누엘 칸트」라는말의 眞實함을眞正히理解할수있다

二

「칸트」라는 人格은 그家庭이產出한것이아니다. 嚴密히말하자면 德國이養育은하얏지만 產出한것은歐洲랄수밧게업다 그런데歐洲라는것은 한번되야固定된것이아니요 亦是 進化의原則에依하여 恒常流動變更하는것이다. 그러면 「칸트」를產出한 歐洲는 엇찌한것이나.

歐洲文化를概觀하면 上古에希臘人의 智를基礎로한文化와 猶太人의 意를基

礎로한文化가 羅馬에서綜合되야 中古에이른것을알수있다. 當時에教會의權威에依하여固定된 信仰上 理論上 實踐上 思想의拘束을맞든 歐洲人의精神生活은 自由解放의運動을開始하여 近代文化의 新發展의經路를 指示하였다 이解放運動이文化史上 이른바文藝復興이며이時代에 모든傳來的權威의拘束을맞지 안코 사람에게固有한理性을尊重히너기며 人文을自由로發展식히라는運動이시작되었다. 이리케覺醒된人心은 人類生活에活動區域을擴大코자努力하여 멀리太陽系의發見 갓가히地球上發見 實로新天地를發見하게되었다. 宗教를爲하여生活하라든 中古의思想을打破하고 사람自身을爲하여살라는 人本主義라든지 教會總織의羈絆을解脫하여神과예수와 直接으로交和하라는 宗教改革도 이時代에現象이다. 要컨댄 自由發展 理性의解放 人類自信力의自覺 地上生活의是認等이 이時代의發輝하든特徵이다.

十八世紀 啓蒙時代의 文化運動도 文藝復興時代의그것을 繼承發展함에不過하였다 科學的智識과理性的眞理를基礎로한文化의自由發展 人類의將來와運命을 人類自身이自決할것 모든傳來的權威의 羈絆을解脫하라는精神의自覺 自由發展의原理에依하여 새로形成할것 이러한理想은人類全體에貫通되는것이라하여 人類統一의促進 等 實로重大한責任을負擔하고 不撓하는勇敢으로前進코자하였다. 이와가티 人類의理性에最高任務를 賦與하였다. 모든 것을理性에依하여 破壞하고建設코자하였다. 모든價値를判定하는標準이理性이라하였다. 그러면 理性이란 무엇이냐 함이 「칸트」의問題이다. 啓蒙時代思想의 理性論的傾向을究極的歸結까지實現하고 昏迷한狀態에잇든生活을 明析하고澈底한狀態로向上식히며 宇宙觀과人生觀을究極의限度까지 理性化하라함이 亦是「칸트」의目的의이었다. 그리고 理性의究極의限度를定하는同時에 이限度를超越하는곳 即人生과宇宙의存在的意我中 理性으로到底히說明키不能한 非理性的인意志의別世界를發見하게되었다. 그러나 理性的인것과 非理性的인것사이에 限界를定限한것도 理性의勝利에歸할것이며 우리精神生活의 神秘的源泉을 새로히發見한것도 理性의切續이라하겠다 이와가티 十四世紀로부터 三百餘年間發展되야오든澈底化하여써 이文化運動를完成하고 또非理性的인意志의世界를發見하여서 이것을壓服하였다하겠다.

### 三

그러면「칸트」는 理性에窮極의限度를 如何히定限하였는지 概觀할必要가있다. 「칸트」前哲學者들은 宇宙의根本의性質을研究하여 實體의原性 精神(心)과肉體(物)의關係 神의存在與否等問題를純全히 理性的思辨에依하여解決하라면 爲先우리의 認識能力을 審히여볼必要가있다 認識의成立은 적어도二個要素로되니 能知者와所知事物이 이것이다 이兩個要素가對立한關係에對하여「칸트」는

말하되 우리마음이 事物과接觸될새 恒常一定한形式을依하여야된다하였다即어  
 쉰한事物이든지 時間과空間의形式으로經驗된다하였다. 事物업시도 純全히時  
 間과空間을생각할수있으나 時間과空間업시는 到底히 事物을經驗할수업다 그  
 래서 時間과空間은 事物에固有한形式이아니요 마음에固有한 直觀的形式이라  
 하였다또는 만일내가「모든變化는반듯이原因이있다」하면이것은내가생각(思惟)  
 한結果로아는것이다. 그러나 이생각은 내가 變化의모든境遇를 一々히經驗하  
 고 歸納的으로總括한後에 비로소아는것이아니라 내마음이저절로「變化」와「原  
 因」이「반듯이」連結되야「모든」變化는 一定한原因의結果라 생각하게되는것이  
 다. 即如何한變化든지經驗할새 우리마음은 因果關係라는形式에依하여理解하  
 는것이다 이러케 因果關係로생각하는 우리마음의 固有한動作形式은 上述한  
 直觀形式即우리마음의感性이 事物을直觀하는形式에對하여 우리마음의悟性이  
 對象을思惟하는形式이라하는것이다.그러나「變化」에對하여는 因果關係로理解  
 하려니와 事物의「分量」에對하여는「單一」或「數多」性質에對하여는「實有」或「非  
 有」等다른思惟形式의存在로認定치아니치못하야「칸트」는 이러한思惟의形式을  
 「範疇」라하고 十二個를定限하였다. 이와가티우리마음은 直觀形式을依하여 外  
 界에서맞는事物의印象을 時間과空間의形式으로批列하고 思惟의形式인十二範  
 疇에依하여 모든印象의互相關係를理解한다하였다. 그래서「칸트」는우리가客觀  
 的世界에對하여 知識을갖는것은 外界事物이明鏡에反射되듯이 우리마음에 비  
 최는것이아니라 우리마음이自己의固有한動作形式에依하여 智識의原料品인  
 外界事物의印象을批列한다論하였다 그싸답에 우리가이른바 自然이란것은 우  
 리마음이形成產出한것이라하야「칸트」는이것을 (生産的想像力)Productive  
 Einbildungskraft)이라불렀다.

그러면 우리가可히認識할만한것은 直接으로經驗할만한것에限하겠다. 直接으  
 로經驗치못할것에對하여는 우리마음의動作形式인 直觀과思惟가適用되지못하  
 겠스즉 智識이成立되지못하겠다. 그싸다락에우리마음과 直接으로接觸되는事  
 物에對하여만即「칸트」의所謂 現象에對하여 만智識이可能하고 이現象을超越  
 하는事物에對하여는 正確한智識이不可能하다하였다「칸트」는또이現象뒤에 우  
 리가아지못하는 事物이있다하야이것을物自體라부르고이 「物自體」에對하여는  
 아모智識도成立될수업다하였다 그싸다락에 우리가 直接으로經驗치못할 心靈  
 世界 神에對하는 形而上學的智識은 眞正한智識이아니요 다만推測한結果로된  
 觀念에不過하다하였다. 여기서 우리는「칸트」가英國의經驗派에對抗하야 主觀  
 의生産的想像力을認定하고 智識成立에 理性의價値를動搖치못할基礎에確立식  
 하여 啓蒙時代의一般的趨勢를完成함을볼수있는同時에理性의窮極의限度를定  
 限하야 啓蒙思想을壓服하고 또超越하는것을깨닫겠다.

#### 四

그러나「칸트」는 神의存在 心靈의不朽 意志의自由等 形而上學의問題를 解決  
치못할것이라絶望한것도아니다.

此等問題는 理性的인思惟世界를超越하여 非理性的인意志의世界에屬한것이  
라하여 다만科學的解決이不可能하다할뿐이요 달리解決할道理를論定하게되었  
다. 그러면이다른解決方法이무엇이나 이것은곳 信仰이다. 「칸트」는말하되 信  
仰에自立權을주기爲하여 智識의能力을制限하였다한다.

「우리위에는 별잇는하늘 우리속에는道德律 宇宙의永久한時間은업서저도 道  
德律은依然히存續하리라」함이「칸트」의偉大한말이다 道德律은實踐的法則이다  
法則이만일法則인效力을두라면 命令的性質을갖는것이다 命令에는 一定한條  
件下에서服從할것 또는아모條件업시絶對的으로服從을要求하는것의두가지가  
있다. 그服從한結果과惡하거나善하거나 幸하거나不幸하거나 福을주거나禍를  
미치거나 絶對的無制約的으로效力을가진것이 道德的命令이다. 「칸트」는이것  
을 直言命令(Der Kategorische Imperativ)이라하였다 그리고 이러한命令에  
服從하는意志는 外來的權威에依하여實現되는것이아니니 만일 外來的權威에  
依한다하면 벌써그命令은 條件的이요 無條件的이아니다. 짜러서 道德的意志  
는他律的이아니요 他律的即自由이니 自由는道德成立에不可無할것이다. 自由  
를認識論的으로研究하면 否定할수밖에업다. 우리는생각하기를自然界의오든現  
象은 嚴格한因果的法則에依하여 必然的으로成就되는데 엇지人類의意志만例  
외리요한다. 그까다락에「自由」라는概念을 科學的으로認定할수업는것이다 그  
러나 道德論的으로研究하면 自由를 認定치아니치못하겠다 自由업시는 道德  
律이成立되지안코 道德律의存在는事實임으로 設或 自由를認定함이 認識論上  
不合理하드래도 道德律에依하여假定하고「밋」어야하겠다. 이것이 認識論上純  
粹理性에依하여證明치못할것을 道德論上 實踐理性에依하여認定되는一例이다.  
實踐理性은 最上善의實現을窮極의目的으로하고 이理想을達하라면 우리的人  
格的存在를 永續할것이니 靈魂의不滅이必要한것이다 또는最上善은實現되나  
세계의進行이 이와서로關係가얹게되면 窮極의目的을達할수업슬것이다. 善에  
窮極의勝利를주고 德에相應한福을줌에는 다만至聖, 全智, 全能한 世界의主宰  
者即神의存在가必要하다 이와가티自由, 永生, 神等은現象界를超越하여認識의  
對象이안되나 그러타고 우리는이것을否認치못함은 우리의 最高價値 最上善  
最高慾望이 업서지고는到底히 우리들의生活이可能치못한까다락이다. 그럼으로  
우리는 이것을論證하기前에「밋」는것이다. 우리의 實踐理性이要求하는事實을  
依하여 그存在를認定하는것이다. 까답에 純粹理性이證明치못할 實在界의問題  
에對하여는 實踐理性의要求高에依하여 認定되는것이다「칸트」는이것을因하여

「實踐의理性의上位」說을唱導하였다.

五

上述함과가티 認識의對象은自然이요 道德의基本은自由이다. 그러면 自然(必然)과自由의對立은엇더한關係이뇨함이「칸트」의最終問題이니 이로써 그哲學的體系를完成하는것이다. 自由로動作한다함을 一定한目的을實現夏期위하야됨이다. 그럼으로 自然과自由의對立은 自然과目的의對立 即 自然의合目的性이다 合目的性은 두가지事實을因하야볼수잇으니 即美와生이이것이다. 한對象이美麗하다하면勿論우리는그對象의有用目的을생각치안는다. 그러나 그對象自體는藝術品과가티 睿智를具有한者가 一定目的에依하야創造하엿다생각한다 또는生物界의 모든現象을觀察하면 生物體의構造뿐아니라 그動作도 合目的性을發輝한다. 生物體의各部分이 그全體의目的에依하야動作하고 그全體가各部分을爲하야動作하는것가티自然의全體와部分도 一定한目的에依하야 存在하고動作하는것이다. 이와가티 自然全體를 合目的性에依하야觀察하고 그因果關係에依하야成就되는機械的動作裏面에 最高한 理性的目的의實現을認定하엿다. 그리고 이목적은 實踐理性의上位인道德律에不過한것이다. 그래서 目的論的考察을依하야 神의世界의永遠한秩序의道德의信仰을認定하게되엿다. 그리고 空間的으로延長되고 時間的으로發展되는 現象界는 道德律에依하야 永久에發展하는 合目的性을有한全體로볼수잇다하엿다. 이와가티「칸트」는 그「純粹理性批判」에서 現象界를 그「實踐理性批判」에서理想界를 그「判斷力批判」에서 意味界를論定하야그哲學的體系를 完成하엿다.

그러면 「칸트」의思想을全體로보아 破壞的이라는同時에建設的이라하겠다. 即 傳來的思想을 批判的으로餘地업시 破壞하는同時에 新基礎에 新宇宙觀新人生觀을建設하엿다. 古代希臘哲學으로시작되여 二千餘年間發展되여오든思想을 佛蘭西革命이社會의基礎를顛覆시키든것과가티하엿다. 그러나 「칸트」는 德國哲學의極盛時代의開幕을代表할뿐만아니라 不過四十年에 希臘哲學의極盛時代에比할만큼된것도 그의偉大한功績이다現代哲學도 實相은 「칸트」哲學의 註譯에不過하다 主張하는사람이있다 「칸트」가일즉이 말하되自己의哲學은 百年쯤너무일즉이왔으나 百年後에는理解되기시작하리라한말이 여기서생각된다.

最終에 그의人格에對하야 數言을添付코자한다. 人格은 그思想에도차지려니와 特히그行動을因하야볼것이며 그實際生活에求할것이다.그런데 「하이네」는 말하되 「칸트」의傳記는 쓰기甚히困難하니 그는生活도업고 歷史도업섯다한다. 學者의生活은 詩人이나政治家의 그것에比하야 甚히單純한 것이다. 特히 「칸트」의生活은 참으로乾燥無味하엿다. 二百年前의오느날부터 一八〇四年

二月十二日까지 八十年동안은德國의東便어느구석에있다는「괴니쓰베어록」市內에서 每日機械와가티起居하며 學生들과理論이나캐고冊이나著述하며 四五人の일홈업는親友와 交際하다가美國의獨立戰과 法國의革命亂으로 全世界가뒤집히는時代이엇건만 自己의出生地안「괴」市맞게나아가보지도못하고 一生을소리업시 홀애비生活하든學者이였다 「하이네」는말하되 牙지못케라 그市에잇는 教堂의鍾도 칸已故鄉親舊「임마누엘·칸트」보다 더規則的으로울지 못했겠다 寢床에서起動하는것 珈排마시는것글쓰는것 講論하는것 食事하는것 散步하는것 다一定한時間이잇섯다「칸트」教授의散步하는것을보고 이웃사람들은 꼭꼭점반된것을아렸다 세계를破壞한그의思想과이 機械的生活을 比較하면 怪常하게對照된다 만일그市民이 이무서운思想을조금이라도理解하엿드면 「칸트」의散步갈새마다 死刑執行者나 맞나는것처럼 벌々썩릿을것이다 그러나 그純良한市民은 아무러치도안은哲學教授로만알었다. 그래서「칸트」教授가 지나가면 인사나하고時計들이나마최엇다한다(以下東亞日報) 그外貌를보아도 「쎄데」나 「헤겔」에比하면 남한테 썩님소리를들을만하고 조고마한體軀에 압흐로급힌듯한가심 하관이빠른容貌 심히弱한音聲은 사람에게儒弱하다는 印象을주기쉬엇다한다 그러나그生活이 이갓치單純하얏다고 그의人格까지 썩님이랄수는업다 偉大한藝術的作品가태서 여러方面으로볼수잇으나 一面만보고 그偉大한全體를 制定치못할것이다

칸트의生活은 그哲學과가치 嚴格한原則에依하야된 徹底한體系가있다 무엇이든지體驗하는대로 一定한原則에依하야 分類하고整頓하랴하엿다 그래서自己生活에 한體裁를주엇다 不規則하고 浮華한生活은凌蔑하얏다 그智識哲學에서 偶然性을有한 經驗的智識과 理性을迷瞞하든感覺을 棄却한것가치그實際生活에서도 偶然한것과 肉感的인것은 盡力하야避하얏다 自然을合目的體系로본것가치 그生活도一定한原則으로한體系를成하랴하면 勉勵하엿다感情보다理性을 理論的理性보다實踐的理性을 尙貴함은『實踐的理性의上位』를主張하든그道德哲學의 實現이라하겠다 「칸트」는實로 그教訓과가치生活하고그生活과가치 教訓하얏다

「칸트」는 自己同族의特性인細密한觀察力과深奧한思索力을타고나온學者이엿다分析的精神만잇느냐하면綜合的도豐富하야徹頭徹尾로 빈틈업시된哲學的體系인 思想의巨大한建築物을完成하엿다 單純히批評家뿐아니요 豐富한想像力을有한 創造的天才이엿다사람인「칸트」는 甚히親切하고溫恭하엿다한다 「헤어르더」의말을의지하건댄「칸트」의心情은 小兒의그것과갓치 天真의態度가잇고 모르는사람을 容易히信用하엿다하며 그氣分은 네가지중神經質에갓가워스나그러나藝術的氣分은볼수업섯다한다 小說의主人公노릇할人格도아니

다함이 世評이었다 「理性限界內의宗教」를 發刊하고當時의普魯斯王「옐  
헨」第二世의「取消命令」을맞았을때 反抗한번업시 順從하였다「칸트」는  
「쾨루노」를 태인불과「마르틴·루터」의自由를빼앗든獄을두려워한것아니지  
만 懦弱하다는世評을니르킨責任을질수밖게업는것이다 내가일즉이伯林 市帝  
國國會합해잇는 所謂「戰勝路」라는데서彷徨할때 歷代帝王과 世々功臣의 石  
像이羅立한압흐로지나다가「옐헨」二世의石像잇는 同一한紀念塔에「칸트」  
의그것도잇는것을보았다天質이愚鈍하고 一生을腐敗한遊戯로虛送하든「옐  
헨」은 人類의思想發展을妨害하였건만 다만 한王家에出生하였다는 偶然한事  
實을因하여 거기榮光스럽게 올라안진것이오「칸트」의거기잇는것은 寒微한  
馬鞍工匠의家庭에出生하였스나自己의天才와精力으로思想나라의王冠을얻은까  
닭이다 그런데 前者의宏大한石像은 차디찬大理石뿐이오「칸트」의謙卑한小  
石像에는 二百年後只今도山脉이뛰는듯하야 나는생각하기를 宗教에「루터」  
藝術에「쾨테」哲學에「칸트」는 우리로하야금德民族의偉大한精神을 永遠히  
잊지못하게하리라 (完)